

성자유

왜그것을두려워하는가

로버트안톤월슨

로버트안톤월슨
성자유
왜그것을두려워하는가
1962 년

성자유를 신념하고, 진지하게 대변하며 실행하는 자들은 언제나 소수였다. 모든 문명사회의 남성과 여성 다수에 대해 적용 가능한 하나의 일반화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다른 무엇보다, 심지어 죽음보다 성자유를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관한 중대한 미스터리라 할 수 있다. 더 정확하게는, 이 영역은 프로이드와 라이히부터 마르쿠제와 브라운까지의 심리학자들이 가장 진지하고 깊게 탐구해온 영역이기도 하다.

서머힐 학교의 창립자인 A. S. 닐은 어느 문명사회에서 남성이 두려움이나 처벌에 대한 걱정 없이 동성애를 행할 수 있는지 질문받은 적이 있다. 닐은 그러한 장소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하여 닐은 남성이 처벌에 대한 걱정 없이 이성애를 행할 수 있는 장소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알버트 엘리스 박사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은 그들이 반-동성애적 문화에서 살기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반-성애적 문화에 살기 때문에 모두 고통받는다는 것이다.

현대의 심리학을 제쳐놓고,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바라보자. 왜 “서민”들이 성자유를 두려워하는가? 그들은 어떠한 비합리적인 터부에 복종하고, 타인에게 부과하려 하는가? 그들은 뻔한 말로 대답할 것이다. 서민들은 “성자유는 아나키와 질서의 붕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뻔한 말을 뻔하게 부정하게 전에, 잠시만 생각을 돌려보자. 현대 아나키즘을 건설한 미하일 바쿠닌은 『신과 국가』에서 “신”이 없으면 국가는 불가능하다고 서술한 바 있다. 그는 프랑스 공화국과 미국을 예로 들었다. 이 두 국가는 모두 자유사상가와 무신론자에 의해 건국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통치의 실질적 문제를 맞닥트리면서 “신”이라는 관념을 빠르게 받아들였다. 빌헬름 라이히의 『성혁명』과 『파시즘의 대중심리』는 국가주의와 권위주의는 일반적으로 교조주의와 섹스에 대한 공포와 융합함을 드러낸다. 반면 반국가주의와 자유의지주의적 태도는 일반적으로 자유사상과 친섹스적 태도를 가진다. 아도르노의 저작 『권위주의적 성격』은 라이히의 명제에 대한 통계적 증거를 제시한다. 통치자는, 그의 신민들이 미신적이고 종교적이며 섹스를 두려워할 때 더 쉽게 복종을 강요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해하기 쉽다. 섹스에 대한 부정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예수회가 프로이트보다 더 전에 알아차린 것처럼, 금욕주의자가 스스로의 육신을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욕망은 다른 방향에서 그의 안에 침투하여 그를 장악한다. 그렇기에 성부정의 필연적 결과는 죄악감이다. “선하다”고 믿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죄악감이다. (중세의 수도승들은 이행하지 못함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칭하곤 했다.) 그리고 죄악감에 휘말린 인간은 조종하고 강제하기 쉽다. 자존감이야말로 자주성과 반란의 전제조건이지만, 죄악감에 휘말린 인간은 자존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의 광고는 마치 보석을 감싸고 있는 자물쇠 마냥 이 사실을 감싸고 돈다. “B.O.” 광고나⁴⁴ 킬로그램 짜리 약골 “광고부터 당신을” 전부 깨끗하게 “만들어 줄 비누 광고까지, 광고들은 자기의 심과 죄악감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죄악감은 광고주의 만병통치약을 통해 치료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 죄악감을 만들어 낸 것도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지만 말이다.

무엇보다, “통치 (정부)”란무엇인가? 통치란 A 를 B 가통제하는것이다. 다르게말하자면, 한인간의의지가다른인간의의지에대하여부차화되는것이다. 우리는통치되지않는사회는불가능하며, 이의지의부차화는필요불가결하며불가변적이라고배워왔다. 그리고우리는이를수인해왔다. 하지만인류학은다른이야기를한다. 인류학자케슬린고프는“사회적형태로써의국가는인류사의 200 분의 1 정도의기간에만존속했다… 아마도국가는인간사회의형태중가장짧은기간만존재한것일지도모른다.”¹ 우리가아나키라부르는것, 이를테면자발적연합이나머지 200 분의 199 를차지한다. 그렇기에래트레이테일러가『역사에서의성 Sex in history』에서적은바, 이국가전단계의사회는성적으로억압되지않았고, 성자유를두려워하지않았다는것은놀라운일이아니다.

인간의강요된순종, 즉국가의의지에대한사회적억속은총체적스트레스로이어진다. 현대정신병리학은모든생명 (원형질) 은겔 (총화산) 과술 (총수축) 사이의전기-규소적평형을포함하고있음을분명히한다. 그리고달팽이나거북이에게서, 공포에움츠리는인간유아에게서가시적으로드러나는것처럼, 스트레스는수축을유발한다. 이물리적신체의수축은우리가“불안”이라부르는것이다. 수축이만성적이되면, 그것은근육에영향을주어“등이굽은”모양을만들어낸다. (배우들이겁먹고몰락한인간을표현할때이러한모양을이용한다.) 이“패배의자세”는모든국가에의해지배되는상황에서드러난다. 반면폴리네시아나아메리카원주민들 (식민시대전) 처럼국가가존재하지않는경우, 두드러지게적게드러난다.

하지만물리적인“움츠러든공감각”의순종적측면인“만성불안”은방어적태도와통제의철학을낳는다. 그리고통치 (정부) 는이통제의충동을가장세련된방식으로활용하는것이며, 전쟁이야말로가장잔혹하고궁극적인통제의형태가된다. 어떠한정부도그신민들을전쟁에몰아넣지않고한세대이상을유지하지못했다. 평화주의자인간디에의해세워진정부조차, 그의죽음이래 8 차례의전쟁을치렀다. 오래지속되는정부의경우, 평균 1 세기에 4 회의전쟁을치렀다.

아무농부나불잡고물어보라. 거세마는종마보다통제하기쉽다. 노예국가였던최초의정부는이를위해성억압을창조했다. 노예들에게죄악감과자괴감을심어주어위압하기쉽게만들고동시에, 성억압은근육의수축그자체가된다. 그로टे이『그것에관한책 The Book of the It』에서보여주었듯, 인간은복근을수축하지않고는의식에서욕망을제거할수없다. 날이말하는것처럼성억압은“심각한복통”이다. 성기가그활발한활동을멈추게하는유일한길은그것을복부의장갑으로활동을죽이는것뿐이기때문이다. 빌헬름라이히는이것의궁극적함의를잘보여준다. 라이히는“문명화된”인간의성질이라할수있는만성적근육수축은물리적고통과정신적불안의과정이라지적한다. 이를통해우리는사회적행동의두가지거대한미스터리를이해할수있다. 왜성억압이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왜정부

¹ The Decline of the State, by Kathleen Gough. Correspondence Publishing Company. 1962.

가 받아들여지는 지말이다. 전자는 기쁨을 없애고, 후자는 종의 파괴를 가져온다. 복종은 몸에 각인된다.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 계속되는 반성애적 교육은 근육의 긴장 상태를 만들어 반란 시도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것이야말로 동성애자들과 양성애자들이 두드러지게 “신경질적”인 이유다. 이들은 사회적 비난과 동시에 그들의 근육이 예측과 복종을 강요하는 “비난” 역시 감내해야 한다.

프로이트의 비판론은 내가 물리적으로 묘사한 과정에 대한 심리학적이 해로부터 비롯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은 스스로의 수인(囚人)이다”라는 우울한 결론을 최종적으로도 출한다. 하지만 근래의 사상가들은 이와는 다소 다른 결론을 내린다. 라이히의 『성혁명』, 브라운의 『죽음에 맞선 삶』, 마르쿠제의 『에로스와 문명』은 모두 “억압 없는 문명”을 꿈꾼다. 그리고 이제 책 모두 그 문명은 국가가 없는 문명이어야 함을 인지한다.

망쿠스 콜로라도의 살해와 코키세(Cochise)의 배신이 발발하기 전까지, 아파치 부족의 사회는 이러한 자유로운 문화의 예시를 보여준다. 결혼 전까지 모든 부족원은 성적으로 자유로웠고 원하는 만큼 즐길 수 있었다. (이혼한 이후에도 동일한 수준의 자유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만약 부족장이 원하는 바에 동의하지 않는 부족원이 있다면, 그는 다른 아파치 부족에 가입하거나 그의 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부족을 시작할 수 있었다. (코키세가 미국 정부와 협정을 맺었을 때 제로니모가 한 것이 이것이다.) 이로써 아파치 부족은 아나키스트들이 자유연합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묶였으며 어떠한 권위주의적 국가 체계도 갖추지 않았다.

기술적으로 더욱 진보한 사회에서도 동일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 프루동의 유명한 아나키즘에 관한 공식인 “국가를 경제 기구로 격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계약에 따른 조직으로 비자발적이고 압제적인 국가 권위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에서, 개인이 어떠한 자발적 연합에 가입하건 간에 그것은 본인의 자유의지의 표현이 된다. (자유의지에 반한다면, 가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비국가 문명은 비국가 모임, 부족, 씨족들과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성적 억압은 어떠한 사회적 기능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죄책감과 복종을 창조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상은 “유토피아적”으로 보일 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리고 노먼 브라운이 말한 것처럼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유토피아적 망상”이 되어버린 현대 사회에서 “유토피아주의”는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버트 웰너가 예측하고, 케이트 린고프와 알리 마르쿠제가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한 것처럼, 자동화는 노동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풍요의 사회를 가능하게 했다. 현대 과학의 두 위대한 성취, 즉 원자력과 자동화는 전통적인 인간상을 그 종언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만약 우리가 개인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다면, 우리의 문화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인간 대중이 더 이상 “피땀 어린 노동으로” 생존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사회적 억압의 주된 지지대는 무너져 내린다. 물론 대규모 실업과 거대한 굶주림은 과거에도 발생했고, 그럼에도 지배계급은 여전히 지배계급으로 남을 수 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바

라 보고 있는 대규모 실업은 이전의 “공황”에 따른 실업을 아득히 초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희망도 구원도 없다. 새로운 일자리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배계급은 이로 인한 굶주림이 역사적 수준에 이르도록 내버려둘 것이다. 그리고 물론 근육적으로 억압된 대중은, 복종과 자기 부정으로 조건지어진 대중은, 일부 반란 분자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수인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마도 식인이 시작될 즈음에는, 억압에 근거한 문화의 체계는 붕괴할 것이다. 그리고 험프티 덤프티가 그러할 것처럼, 누구도 그것을 다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이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래 (그런 것이 있다면)의 억압되지 않은 인간들은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정신 병원에 가지 않고 살아남았는지 놀랄 것이다. 그리고 정신 병원에 가게 된 사람들이 억압의 문명의 자연스러운 귀결로 여겨질 것이다.